

지역 매아리



부안 하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 벌여

부안군 하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하서의 현실을 고려해 노인인구의 주된 욕구 중 하나인 식사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인 '홀몸 어르신 및 반찬 지원사업'인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를 펼쳤다.

하서면의 지역특화사업은 지난 9월 25일, 지난 11월 14일 각각 100명과 120명의 관내 홀몸 어르신에게 돼지고기, 메추리알 장조림을 전달하였다.

이날 여성자원봉사자 20명이 참여했으며 면사무소 전직원과 홀몸노인 생활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 살기 좋은 하서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하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숙자 서순자 위원장은 "밑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홀몸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 및 건강생활유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서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경찰서, 비위예방활동 전개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 청문감사실에서는 전직원을 모아 교육하는 집체식 전담교육보다 현장을 직접 방문 토론행형식으로 전달하는 교육효과가 크다고 보고 현장방문을 통해 비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경찰관의 의무위반행위는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을 명심하자는 취지의 자율토의를 통해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홍덕화출소 전총식 팀장은 "지금까지 지적하는 감찰행정만 보였는데 칭찬하고 격려하며 다니는 청문행정을 보고 우리조직이 많이 선진화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박현수 서장은 "감찰의 순기능은 조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조직이 화합하고 발전하는데 청문기능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역경제 효자 노릇 '톡톡'

올해 구절초축제, 관광객 80만명·경제효과 80억원 정읍시, 평가보고회 갖고 보완·개선방안 등 모색



구절초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 간 구절초테마공원에서 열렸다.

12회 짝인 올해 정읍구절초축제에 모두 80만명이 다녀갔다. 또 8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구절초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 간 구절초테마공원에서 열렸다.

축제 방문객 집계 이래 1일 최고(120,500명, 10월 5일)를 기록하는 등 올해 축제는 어느 해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전국적인 대형 명품축제로서의 위상을 보였다. 평가는 지난 14일 시청별관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2회 정읍

구절초축제 평가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생기 시장과 축제추진위원회 김민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추진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축제를 종합평가, 성공 요인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이날 참석위원들은 "특히 올해 축제는 경관 인프라의 우수성과 축제의 전국적인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축제장 진입도로 교통체증과 축제음식의 품질 향상 필요성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 교통 인프라 확충, 축제음식 위생 교육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명실공히 전국 최고 축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 비전 구축과 축제 운영의 전문성 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김생기 시장과 김민영 위원장은 "올해 축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개선점 등을 모색해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장애인·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꿈꾼다

고창군장애인복지관 개관

지역 장애인 복지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고창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종만)이 문을 열었다.

고창군장애인복지관은 15일 복지관 앞 특설무대에서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이호근·장병식 도의원, 군의원 전라북도 박철용 복지여성보 건국장 도내 장애인복지관장, 사회복지 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역 장애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은 시·고창농악보존회의 길놀이로 시작하여 식전공연이 이뤄졌으며 이후 기념커팅, 기념식수, 복지관 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고창군장애인복지관은 지역 내 5700여명의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박우정 군수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고창군장애인복지관은 고창읍 전봉준로 88-9번지에 부

지면적 3,428㎡, 건축연면적 1,598㎡, 지상 2층으로 국·도비 12억 등 총 사업비 41억5600여만원을 들여 조성됐다.

군은 지난 2014년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2년간 주민공청회와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5년 설계를 완료해 2016년 착공했다.

올 6월 5일 준공 후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한두레 장애인자립생활협회가 수탁자로 선정돼 운영 협약 후 오는 2022년 7월 31일까지 5년간 복지관 운영을 맡게 됐다.

고창군장애인복지관 1층은 운동재활실, 작업재활실, 인지재활실, 휴게실, 식당, 소회의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2층은 강당, 직업훈련실, 직업개발실, 음악활동실, 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으로 마련됐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상담사례관리와 재가복지, 직업능력개발(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맞춤형 직업개발), 기능향상(작업재활, 인지재활, 운동재활), 장애인가족지원, 여성장애인복지증진, 권익옹호(성·인권교육, 장애인식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우정 군수는 "민선 6기 고창군은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행복도시를 목표로 세심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창군민의 10%에 가까운 지역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며 "장애인복지관은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등이 들어서 있는 사회복지시설지구 내에 조성되어 지역 복지 인프라가 더욱 촘촘하게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지원과 일자리 등 다양한 고창군민으로 복지를 누리고 원하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계화간척지 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서해안 바다 미량원소가 풍부한 계화간척지에서 재배된 쌀이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계화간척지 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식품연구원,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어민 신문이 후원한 '제26회 전국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계화농협(조합장 이석훈)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계화농협과 부안군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난 2006년부터 부안 쌀의 우수성과 판로 확대를 위해 명품 부안 쌀 전년의 습씨 단지 2,200ha를 지정하고 우수보급종 보급 생산비 및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 결실을 보았다.

계화농협 최기현 과장은 "계화간척지 쌀은 서해안 바다를 막아 오



랫동안 해조류 및 퇴적층이 쌓여 미량원소가 많은 토질에서 생산된 쌀로 맛과 품질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쌀로 명성을 얻은 지 오래됐다"며 "다시 한 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연말까지 사용 해야"

정읍시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12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생생카드는 문화시설 등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문화 및 학습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한 바우처 카드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달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아 선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왔다.

카드 신청 자격은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만 65세인 여성농업인과 만

20세 이상에서 만 24세 기혼 여성농업인으로, 가구 당 농지 소유 면적이 5만㎡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스포츠용품과 수영장 영회관, 공연장, 서점, 사진관 인경점 등 2개 업종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생생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지원액은 자동소멸된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농협 시무를 통해 발급받아 연내 사용해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완료 보고회' 가져

정읍시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관련해 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 정보화위원회와 정보화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다.

행정과 보건복지, 교육, 경제, 관광 등 정읍시 환경에 최적화된 정보화

과제와 개인 정보화 사업 추진 등 정읍시 정보화 분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본격적인 '스마트 시티 시대' 개막에 대비한 ▲스마트벤처 서비스 ▲CCTV관제센터 고도화 등 29개의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미래형 스마트 행복도시 정읍구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by Gangsanmyeongju.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ulberry tree and several bottles of win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myeongju.